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작은 용으로 일으켜 세운

리관유(李光耀)

주장환 |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본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인 주장환의 「인류의 CEO, 이것이 다르다」는 태초의 인류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 땅에 자리잡은 독특한 경영이론에서부터 처칠, 케네디, 주원장, 카네기, 세종대왕 등 인류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추출하여 오늘날 우리 기업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CEO관을 제시해주고 있다.



인구 300만의 작은 나라, 좁은 땅덩어리, 게으른 국민성, 변변한 부존자원은 커녕 마실 물조차 부족한 싱가포르가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2만8천 달러의 부국이 되기까지 리관유(李光耀)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다.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작은 용으로 일으켜 세운 인물이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로, 20세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정희식(淸) 경제모형을 연구한 인물이기도 하다.

1965년 8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희망의 등불은 사그라져가고 있었다. 빈곤의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 있었고 '떼법'과 무질서가 판쳤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말레이, 타밀, 한(漢), 인도족 등 여러 민족의 집합체이다 보니 갈등과 반목이 심했고, 공산주의자들의 정권탈취 노력 또한 집요했다. 이때 약관 35세의 나

이로 싱가포르 총리에 취임한 사람이 리관유였다.

리관유는 1923년 9월 16일 싱가포르의 어느 화교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일족은 중국에서 소수민족 취급을 받는 하카(客家)족 이었다. 하카는 중국 내 권력투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밀려나 광둥 등 중국 남부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 비주류가 되다보니 살길을 찾아 해외로 나갔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우리나라까지 흘러들어왔는데 우리가 화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화교의 원조로 보며, '화교 중의 화교'라고 부른다. 하카는 권력을 잡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장사에 나서거나 정치인을 배출했다. 손문, 덩샤오핑, 대만의 리덩후이 전 총통,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등이 모두 하카 출신이다.

리관유는 하카족 이민자의 4대 후손이다. 그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작은 용으로 일으켜 세운 인물이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로, 20세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리관유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정희식(式) 경제모델을 연구한 인물이기도 하다.

태어났을 당시, 장사로 모은 돈으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나 곧이어 들이닥친 세계 경제대공황으로 집안 살림이 기울어진다. 그러나 자녀교육열이 높은 부모와 자신의 노력으로 리관유는 텔록쿠나우 초등학교와 래플스 중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당시 싱가포르 최고의 대학이었던 래플스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한다. 그는 이 시절 엄청난 책을 읽었다고 한다. 나중에 그는 “현재의 싱가포르는 내 독서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한 걸 보면 젊은 날의 독서가 그의 인생에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뛰어난 CEO들이 독서에 탐닉했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세월은 때때로 인간에게 혹독한 시련을 준다. 1941년 12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싱가포르를 점령한다. 이때 일본군은 싱가포르 주민 5만여 명을 학살했는데 리관유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는 일본군 선전부에서 연합군 측의 선전방송 내용을 감청하는가하면 암시장에서 장사를 하기도 했으나 무사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앞잡이라 해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불려갔을 사안이다.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나 바라던 평화 대신,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이 지속됐다. 리관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로 유학, 법을 공부한다. 리관유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영국유학 시절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나는 그 곳에서

영국인들의 철저한 준법정신과 합리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의 경험은 나중에 국정운영의 틀이 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학생 중 동남아 빈국에서 온 자신을 우습게 알고 꺼려하는 일부 영국인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경제개발에 대한 것이었다. 이 시절 그는 나중에 내각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게 되는 싱가포르 출신의 유학생들인 고갱쉬, 풍하우같은 친구들과 스터디그룹을 결성하여 미래의 싱가포르를 대비해 나갔다. 이때 평생 반려자인 과 격추와 만나 사랑을 싹틔우게 되는데 이들은 1947년 12월 비밀리에 결혼했다. 케임브리지대학을 졸업한 그는 영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1950년 8월, 싱가포르로 귀향했다. 다시 돌아 온 고향땅,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피폐한 땅이었다. 현실에 대한 울분에서, 다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그는 노동자들을 대변해 가며 정치적 출구를 모색해 나갔다. 부패하고 낡은 이념의 기성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낀 그는 재야공산세력과 손을 잡게 된다. 1954년 11월, 그는 마침내 영국 유학시절 친구들과 싱가포르 토착세력, 그리고 말레이 반도, 인도출신의 이주민들을 주축으로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부패한 기성정당 보다 그래도 신선해 보이는 공산당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니, 어찌 보면 민심을 잃어가고 있던 노동당과 인민전선당에 대치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

작고 햇볕은 나라를 '아테네 이후 가장 놀라운 도시국가'로 불리게 만든 리관유에 대한 후세인의 평가는 서로 상반된다. 리관유를 경모하는 사람들은 리관유를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으나 독재자란 비난을 하는 그룹도 적지 않다.

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사건등을 접했던 터라 밑바닥 민심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민심을 휘어잡을 수 있었다. 1955년 4월, 싱가포르 자치령 입법평의회 선거에서 그를 포함한 세 명의 인민행동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고, 1959년 5월에는 자신이 당수로 있던 인민행동당이 싱가포르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리관유는 싱가포르 자치령의 총리가 된다. 약관 35세의 새파란 총리였다.

리관유는 드디어 개혁과 민주사회 및 경제발전이라는 칼을 빼든다.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봉급을 자진삭감하고 주택개발청(HDB)을 설립, 영구임대아파트를 대량 건설하여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게 되는데, '공직비리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을 설치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상투적으로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공산주의와 정면으로 맞선다. 인민행동당(PAP) 내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집단 탈당하여 '바리산 사회주의 연합'을 세우고 저항했으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1960년대 말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싱가포르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다.

리관유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덩치가 커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라야(말레이 반도)와 합병, 말레이시아 연방을 결성하였으나 중국계-말레이계간의 인종문제가 생겼으며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 주(州) 사이에는 갈등이 고조되었다. 1964년

7월 21일, 모하메드의 생일날, 이슬람계 말레이인들이 인종폭동을 일으켰고, 9월에도 또 한 차례 폭동을 일으켜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말레이시아 연방에 편입 2년만인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탈퇴를 하게 된다.

리관유는 눈앞이 캄캄했다. 높은 실업률과 인구 증가율, 경기침체. 앞친데 덮친 격으로 싱가포르 전체 GDP의 1/4정도나 되는 돈을 뿌려대던 싱가포르 주둔 영국군이 철수하면서 국가안보와 경제적인 면에서 치명타를 입는다. 그는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폐쇄정책을 버리고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노동자 우호정책도 접고 연간 임금인상율을 2% 내외로 억제하는 등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했고 불법 노조파업에는 매를 들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사회가 안정됐으며 해외자본들이 밀려들어 왔다. 더불어 박정희식 통치모형을 연구하는 한편, 후진 국가들의 잘못된 국가통치사례들에서 교훈을 얻어 부정부패가 생겨나지 않도록 했으며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기강을 세웠다. 출장비 10만원을 유용한 판사는 사표를 내야했고 2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국가개발부 장관이자 리관유의 오랜 측근이었던 테체양은 자살했다. 리관유는 자신에게도 엄격했다. 콘도미니엄 구입 시 분양금의 일정액을 할인받았다가 할인액 전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경호원도 동반하지 않은 채 싱가포르 항공 사육 내 직원용 수영장에 찾아가서 수영하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위해 무더운 날씨

리관유의 성공은 다음 5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①고난에 대한 도전 ②엘리트 공무원의 육성 ③엄격한 법과 제도의 시행 ④시장개방과 해외자본 유치 ⑤민주주의 발전이다. 기업의 CEO도 마찬가지다. 능력 있는 사원을 선발하고 위계질서를 확립하며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고 CEO의 능력 아니겠는가?

에도 직접 빗자루를 들고 나서서 6시간동안 거리 청소를 하기도 했다. 부부가 일반석에 앉아 공연을 보는가하면 외국 방문 시 전용비행기나 전세기가 아닌 일반 정기항공편을 이용했다. 친인척 관리도 엄격해서 웬만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친인척은 공직에 근무하지를 못했다. 리관유의 아버지는 아들이 총리자리에 오른 뒤에도 70세가 넘도록 작은 시계 수리점을 경영하며 평범하게 살았다.

작고 혈벳은 나라를 '아테네 이후 가장 놀라운 도시국가'로 불리게 만든 리관유에 대한 후세인의 평가는 서로 상반된다. 그를 경모하는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으나 독재자란 비난을 하는 그룹도 적지 않다. 2001년 홍콩 중문(中僑) 대학교에서 리관유에게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하려 하자 재학생 1000여명이 '독재자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서는 안 된다' 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점은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과 닮았다. 보는 눈에 따라 평가는 다르겠지만 세상에 결점 없는 인간이 어디 있으며 평생 잘하기만 하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어쨌든, 리관유는 수령 속 싱

가포르를 건져 올렸음에 틀림이 없다. 아시아 저개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나 싱가포르처럼 성장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다.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가 해도 그 정도는 했다"고 침을 튀기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을 던지는 지도자가 그리 흔치 않음을 우리는 동서고금을 통해 알고 있다.

리관유의 성공은 다음 5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①고난에 대한 도전 ②엘리트 공무원의 육성 ③엄격한 법과 제도의 시행 ④시장개방과 해외자본 유치 ⑤민주주의 발전이다. 기업의 CEO도 마찬가지다. 능력 있는 사원을 선발하고 위계질서를 확립하며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고 CEO의 능력 아니겠는가?

리관유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날 싱가포르가 있기까지 험난한 역정을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유능한 정부, 공공질서와 안보가 보장되는 사회 등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님을 국민들이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다." ●

주장환님은 서울신문사(스포츠투서울), 세계일보를 거쳐 파이낸셜뉴스 문화부장, 국제부장, 유통부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언론연구원, 캠브리지대학을 연수하였으며 충효예실천운동본부전문위원, 한국바디워크프로페셔널협회고문, 언노련민주언론실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대학원평생교육원, 삼성, GS문화원 등에서 「신문을 통한 우리 경제 엿보기」, 「문학의 이해-소설과 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하는 NIE / 논술여행」 등

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논리강의』, 『논술이라고?, 너 딱걸렸어』, 『노벨문학상 소프트 1,2』, 『과학퍼즐』 (문화체육부 선정 추천도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식논술陣법 NIE』, 『로즈여사에게 배우는 특별한 자녀양육법 26』 등과 장편소설 『그 바닷가 헛간은 따스했다』, 『사바카』, 『겨울새 물살탈기』, 시집 『내 마음 속에 사랑의 집 한 채』, 번역서 『독불장군처럼 살아라』, 『오사마 빈라덴』, 『사랑을 주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등이 있습니다.